

합성명사와 합성법의 변화*

이선영**

〈차 례〉

1. 머리말
2.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합성명사
3. 명사와 명사가 직접 결합한 합성명사
4. 사이시옷이 개입한 합성명사
5. 절단이 일어난 합성명사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합성명사의 형성방식이 중세국어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명사와 명사가 아무 개재하는 요소 없이 직접 결합하는 방식은 중세국어부터 지금까지 별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방식은 가장 많은 수의 합성명사를 형성하지만 그 결과 생성된 합성명사를 구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둘째, 명사와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입하는 방식은 중세국어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이시옷은 중세국어에서는 음운론적 기능을 하는 사잇소리와 속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이시옷이 표기상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같이 쓰였다. 근대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이 속격조사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주로 합성어 표지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은 그 표기가 가능한 일부 단어에서 합성어 표지로 쓰이고 있다. 합성어 표지로서의 사이시옷은 두 구성 요소의 결합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사이시옷으로 인하여 생성된 합성명사는 구와의 구별이 명확해진다. 셋째,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될 때 그 사이에서 절단이 일어나는 유형이다. 절단은 다시 음운의 절단과 음절의 절단으로 나누어지고, 음절의 절단은 다시 공통 음절의 절단과 비공통 음절의 절단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절단 역시 사이시옷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합성명사에서 두 구성성분의 결합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용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제어] 합성명사, 사이시옷, 혼성어, 절단, 의미핵

1. 머리말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합성어는 그 생성된 단어의 품사에 따라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합성명사, 합성부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합성명사이며, 이 합성명사 구성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시기별로 확인되는 합성명사의 형성을 보면, 그 결합 방식이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유형도 있지만, 한 시기에 쓰이다가 이후 변화가 생긴 유형, 또는 중세국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현대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합성명사의 형성방식이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형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합성명사

먼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합성명사 형성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안병희·이광호(1990 : 111)에서는 중세국어 합성명사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 (1) ㄱ. 밤낮, 똥오줌, 화살, 아라웅
- ㄴ. 밧골, 수툇, 암툇, 밧기슭, 몃툇
- ㄷ. 외뺍, 문누의, 외섬, 하나비, 저므니, 혼가지

ㄷ. 호오삿말

(1ㄱ)은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직접구성요소가 각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보고 두 요소 사이에 ‘과/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1ㄴ)은 선행명사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의미로 선행체언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ㄴ, ㄹ, ㅁ’으로 끝나면 속격조사 ‘ㅅ’을 첨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1ㄷ)은 선행성분이 후행성분을 수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1ㄴ)과 유사하나 한정어의 성분이 형용사의 관형사형과 수사 등으로 다양하다고 하였다. (1ㄷ)은 일견 부사 ‘호오ㅅ’가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특이해 보이나 ‘호오ㅅ’가 명사의 자격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1ㄴ)과 같은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세국어의 합성명사는 구성성분이 대등한 의미인 유형(1ㄱ)과 선행성분이 후행성분을 수식하는 종속적 의미의 유형(1ㄴ, ㄷ, ㄷ)으로 나누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합성명사의 형태는 명사+명사(1ㄱ, 1ㄷ), 명사+ㅅ+명사(1ㄴ, 1ㄷ), 관형사형+명사(1ㄷ)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영근(2020 : 201~202)에서는 합성명사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2) ㄱ. ① 쫘오좁, 밤낫, 어시아들, ㅁ쇼, 바느실, 가막가치, 아라웁, 사나을, 여널굽
 ② 뵈기슁, ㄴ새; 뵈믈, ㄴ믈; 쇠뵈, ㄴ구뵈, ㄱ집죈, 입거웁, ㄱ죈말; ㄷ기알, 쇼의고기, ㄱ엿꺼회
 ③ ㄱ장바치, 노릇바치, 성냥바지; ㄴ아들, ㄴ누의, ㄴ아기; 암뵈, 수쇼
 ㄴ. 외뵈, 외쵸, 요스ㅅ, 요주슁, ㄷ즈슁
 ㄷ. 하나뵈, 한뵈, 한슁, ㄷ머리, ㄴ그니, ㄷ르니, ㄷ물쇠, ㄷ르리

(2ㄱ)의 ①은 두 명사가 대등적으로 결합한 대등적 합성어이고, ②는 앞의 명사가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종속적 합성어인데, 앞 명사의 끝소리가 유성음이고 뒤에 오는 명사의 첫 자음이 무성평자음이면 대개 속격조사 ‘ㅅ’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③은 접사의 기능이 강한 명사 ‘바치’나 ‘뵈’, ‘암’, ‘수’와

결합한 예로 분류하였다. (2ㄴ)은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예이고, (2ㄷ)은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이다. 이 분류 역시 앞의 분류보다 좀 더 자세하기는 하나 의미상 대등관계와 의미상 종속관계로 나누어 합성명사를 논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근대국어의 합성명사에 관한 논의는 이광호(2004 : 133~1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복합명사를 그 구성성분의 유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 (3) ㄱ. 골초개, 낫밤, 눈비, 바느실, 밤낮, 안팎, 안팎, 앞뒤
 ㄴ. 귀스구무, 눈스물, 밧넙, 발스바당, 손스금, 아래웃니, 저젓거리, 춤개새, 쿡구무, 풀스구머리, 헛빔, 머구리밥, 머구리밥, 아비누의
 ㄷ. 갓뿔, 나귀고기, 동침누의, 미나리밭, 보리기름, 소곰물, 아기아들, 젓어미, 콩넙, 흙물
 ㄹ. 큰아기, 거문콩, 노른자의, 늘그니, 된서리, 미친개, 불근뜰, 쉼물, 이촌쫄, 큰뜰, 흰콩

(3ㄱ)의 예들은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두 성분이 대등한 의미로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를 공동격 조사 ‘와/과’로 통합한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3ㄴ)은 중세국어 속격조사 ‘스’이었던 것이 그 기능을 잃고 근대국어 합성명사 표지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드물게 ‘머구리밥, 머구리밥, 아비누의’처럼 속격조사 ‘의(의)’ 유형이 화석화한 예도 있다고 보았다. (3ㄷ)은 의미상 (3ㄴ)과 같은 유형으로 선행명사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것인데 외형상 수식이 표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3ㄹ)은 관형사나 형용사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통사적 구성이 화석화하여 명사가 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보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합성명사는 크게 명사와 명사가 대등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유형과, 명사 또는 수식어 성분이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인 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에 주목하여 선행성분이 관형사형인 유형 등은 제외하고,

선행성분이 명사인 경우의 합성명사를 대상으로 그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3. 명사와 명사가 직접 결합한 합성명사

먼저 살펴볼 유형은 명사와 명사가, 개재되는 요소나 탈락하는 요소 없이 원 형태 그대로 직접 결합하여 된 합성명사이다. 이 유형은 선행성분과 후행성분이 대등한 의미로 결합한 경우와, 선행성분이 후행성분을 수식하는 종속적 의미인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¹⁾

- (4) ㄱ. 밤낮, 쫓오좁, 아라웅, 어시아들, 앞뿔, 암송, 우아래
 ㄴ. 굴쫓개, 낮밤, 눈비, 밤낮, 안팎, 앞뒤, 암수, 우아래, 아래우

(4)는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명사 두 개가 대등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4ㄱ)은 중세국어, (4ㄴ)은 근대국어의 예이다. 여기에서 대응관계에 있는 두 명사는 합성명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나 구와의 구별이 쉽지는 않다.

- (5) 가로세로, 밤낮, 눈비, 하늘땅, 위아래, 아래위, 손발, 아들딸, 암수, 앞뒤, 바지저고리, 봄가을, 비바람, 아침저녁, 콩팥, 팔다리, 피땀, 흙모래

(5)는 사전에 등재된 현대국어의 합성명사 중 일부 예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성분이 되는 두 명사가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²⁾ 이 단어들은 의미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두 단어 의미의 단순 합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1)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단어 예는 앞의 논의에서 다룬 것에 추가로 확인되는 것을 몇 개 더하여 제시하였다.

2) 사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을 참고하였다.

단어의 합에서 확장된 제3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 (6) ㄱ. 가로세로, 눈비, 밤낮³⁾ 하늘땅, 아래위, 아들딸, 암수, 봄가을, 콩팥⁴⁾
 ㄴ. 위아래, 손발, 앞뒤, 바지저고리, 피땀

(6ㄱ)은 두 단어 의미의 합이 합성명사의 의미와 동일한 예이고, (6ㄴ)은 대등한 두 단어 의미의 합 외에 새로운 확장 의미가 생긴 예이다. 이 예들에서 (6ㄱ)은 사실 앞에서 본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예와 마찬가지로 구와의 구별이 쉽지 않다 하겠다.⁵⁾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표지의 첨가, 또는 결합 과정에서 어떤 요소의 탈락 등 요인이 없는 경우 합성명사를 구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등한 의미의 합성명사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명사 세 개가 결합하여 된 합성명사도 있다는 것이다.

- (7) 가위바위보, 에이비시

이 단어들도 (6ㄴ)의 예와 마찬가지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⁶⁾

3) '밤낮'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란 뜻이 있으나 이 의미는 부사인 경우에 나타난다.

4) 사전 뜻풀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가로세로(가로와 세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눈비(눈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밤낮(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하늘땅(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아래위(아래와 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아들딸(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암수(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봄가을(봄과 가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콩팥(콩과 팥을 아울러 이르는 말)

ㄴ) 위아래(①아래와 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손발(①손과 발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앞뒤(①앞과 뒤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먼저와 나중에 아울러 이르는 말. ③앞말과 뒷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바지저고리(①바지와 저고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주견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③'촌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피땀(①피와 땀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구와 합성명사의 식별과 관련한 논의는 김규선(1970), 서정수(1981), 김창섭(1996), 이상욱(201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가위바위보(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 두 개의 손가락만 편 것을 '가위', 주먹을 편 것을 '바위', 손가락을 모두 편 것을 '보'라 하는데, '가위'는 '보'에, '바위'는 '가

다음으로 합성명사를 이루는 두 명사의 의미가 대등하지 않고 선행명사가 후행명사에 종속되는 의미인 경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 (8) ㄱ. 겨집동심 쇠붙, 물구비, 겨집종, 입거웃, 거죽말, 공장마치, 노릇마치, 성냥마지, 툴아들, 툴누의, 툴아기, 암물, 수쇼, 가시나모, 나모그릇, 밤눈, 빅얌빨기, 소곰물, 솟불, 안막숨, 앓끓, 이웃집
- ㄴ. 갓붙, 나귀고기, 동심누의, 미나리밭, 보리기름, 소곰물, 아기아들, 젓어미, 콩넙, 흙물, 가시덤불, 늦그릇, 곳봉오리, 집비두리, 술집, 조희삼지

(8ㄱ)은 중세국어, (8ㄴ)은 근대국어에 나타나는 합성명사의 일부 예인데 (4)와 달리 선행명사가 후행명사의 의미를 수식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합성명사는 현대국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냄비국수, 메밀국수, 쌀국수, 콩국수, 계란밥, 나물밥, 보리밥, 삼층밥, 아침밥, 잡곡밥, 저녁밥, 주먹밥, 죽밥, 집밥

(9)는 선행명사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형성된 단어의 일부 예이다. 이 유형과 관련하여서 논할 문제는 ‘의미핵’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의미핵’은 의미의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파생어나 합성어 등의 단어 형성에서는 주로 후행 요소가 의미핵이 된다고 본다.⁷⁾ 예를 들어 합성명사 ‘밥집’과 ‘집밥’을 비교해 보면, 전자인 ‘밥집’은 ‘밥을 파는 집’을 의미하고 후자인 ‘집밥’은 ‘집에서 먹는 밥’을 의미하여 어느 경우든 후행요소가 의미핵이 된다. (9)에서 단어의 후행성분인 ‘국수’와 ‘밥’이 의미의 중심인 의미핵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6)처럼

위에, ‘보’는 ‘바위’에 각각 이긴다.) / 에이비시(①영어의 자모 가운데 처음 석 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알파벳’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③기초 또는 기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의미핵에 대하여서는 정한데로(2019 : 66~72)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의미가 대등한 합성명사의 경우이다. ‘가로세로’나 ‘위아래’같이 두 성분이 의미상 대등하게 결합한 경우는 특별히 후행 명사가 의미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선행명사가 의미핵이 되는 것도 아니다.⁸⁾ 이와 같이 대등한 의미의 명사가 결합하여 된 합성명사의 경우에는 의미핵이 없다고 보거나 두 요소의 결합이 의미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가위 바위보’나 ‘에이비시’처럼 대등한 의미의 명사 세 개가 결합하여 된 단어의 경우에도 특별히 후행요소가 의미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미핵이 없거나, 세 단어의 합이 의미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이시옷이 개입한 합성명사

다음으로 볼 유형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있는 합성명사이다.

- (10) ㄱ. 뗏골, 뗏기슭, 뽕뽕 뗏기슭, 뽕새, 뽕물, 꾀물, 꾀구무, 꾀구무, 꾀바회,
나뭇가지, 나뭇잎, 뒷간
ㄴ. 귀스구무, 눈스물, 땃땀, 발스바당, 손스금, 저젯거리, 흠개새, 콧구무,
폴스구머리, 헛땀

(10ㄱ)은 중세국어의 예이고, (10ㄴ)은 근대국어의 예이다. 일견 중세국어의 예와 근대국어의 예에서 표기상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나 이 둘 사이에는 기능상 큰 차이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은 속격조사에서 출발하는데, 이기문(1972 : 209)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속격조사였던 ‘스’이 근대국어에 와서 문자 그대로의 ‘사이시옷’이 되어 합성명사 표지로 쓰이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10ㄱ)의 예들은 앞선 논의에

8) 정한데로(2019 : 102)에서도 ‘논밭, 물밭’과 같은 대등합성어에서는 핵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을 언급한 바 있다.

서 합성명사로 보고 있지만, 구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단어들이 처음부터 합성명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통사적 구가 추후에 합성명사화가 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중세국어의 사이시옷 표기는 음운론적 요소로 표기한 사잇소리와, 속격조사를 의미하는 사이시옷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적지 않은데,⁹⁾ 위의 예들은 사잇소리 표기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명사 사이의 사이시옷을 속격조사로 보든, 사잇소리로 보든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들이 근대국어에서 합성명사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하겠다. (10ㄴ)의 예가 근대국어의 예인데 이 단어들은 중세국어와 달리 합성명사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1ㄷ)에서 본 중세국어의 ‘**흐오삿**말’이란 단어도 흥미로운 예인데, 안병희·이광호(1990 : 112)에서는 ‘**흐오사**’가 부사인데 명사의 자격으로 쓰였다고 보았으나 임홍빈(198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시옷이 ‘통사적 구성의 과격’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고 본다면 사이시옷의 역할로 인하여 부사가 명사와 직접 결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¹⁰⁾ 이처럼 결합이 불가능한 요소들을 합하여 합성명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이시옷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근대국어의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 가운데 중세국어에서 통사적 구였던 것이 단어화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예들이 구 상태로 분리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근대국어에서는 속격조사로서의 사이시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들을 결합 이전의 두 명사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합성명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현대국어의 합성명사에 쓰이는 사이시옷은 ‘**빛**물, **수**뚝물, **뒷**일’ 등과 같은 단어에서 표기되는데,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두 구성성분의 결합위치에 오는 성분의 발음이 어떠한지에

9) 이와 관련해서는 박창원(1997), 이선영(2005), 남미정(2012), 김정인(202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0) 물론 이 단어는 부사와 명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예는 아니나 사이시옷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언급하였다.

따라 그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¹¹⁾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이 속격이라는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였던 데 반해 현대국어의 사이시옷은 추가적으로 덧나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근대국어의 사이시옷도 속격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합성어 표지로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역시 현대국어와는 차이가 있다. 즉,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속격조사 ‘ㅅ’, 근대국어의 합성어 표지인 ‘ㅅ’, 그리고 현대국어 사잇소리 표기를 위한 ‘ㅅ’은 표기는 동일하나, 그 기능은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의 사이시옷은 단어 내에서의 출현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¹²⁾ 또한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이 사잇소리의 성격을 띤다는 논의가 있으나,¹³⁾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것이 합성어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11) ㄱ. 우윳값
 ㄴ. 우유 값

‘우유의 가격’을 의미하는 ‘우윳값’을 생각해 보자. 이 단어는 ‘우윳값’처럼 합성명사로 표기하거나, ‘(내가 먹는) 우유 값’처럼 의미에 따라 구로 띄어 써서 표기하거나 ‘값’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¹⁴⁾ 그렇다

11)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순 우리말의 경우,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나뭇가지, 냇가)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아랫니, 냇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덧일, 껏일)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자릿새, 전셋집)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갯날, 양치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가윗일, 훗일)

12) 임흥빈(1981)과 김창섭(1996)에서는 사전치명사와 사후치명사를 논하였고, 최형용(2009)에서는 사이시옷을 형태소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검토한 바 있다.

13) 물론 ‘계란밥, 된장국’과 같이 사이시옷 표기가 불가능한 단어의 발음 변화를 생각해 하면 이를 음운론적 요소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4) 물론 띄어 쓸 경우 [값]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법에 맞는 하나 현실발음은 [갑]인 경우가

면 ‘우웁값’과 ‘우유 값’의 표기 차이는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구로 인식하였느냐 아니면 한 단어로 인식하였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쓰인 사이시옷은 발음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합성명사 표지로 쓰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의 기능은 일부 위치에서이기는 하나 명사와 명사의 결합에 쓰이는 합성어 표지라 볼 수 있다.

이제 표기에 나타나는 사이시옷의 통시적 변화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중세국어에서는 사이시옷이 속격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근대국어에서는 그 기능이 사라진 후 일부 단어에서 합성어 표지로 나타나고, 현대국어에서는 선행성분이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합성명사에서 합성어 표지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명사와 명사가 아무 개재되는 요소 없이 직접 결합했을 경우 그것이 구인지 단어인지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명사와 명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사이시옷은 현대국어의 일부 단어에서 합성어 표지로 쓰이는바, 두 단어의 결합을 시각적으로 명시화하여 합성어를 구와 구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겠다.

5. 절단이 일어난 합성명사

다음으로 볼 유형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만들 때 절단이 일어난 유형이다. 앞에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사이시옷 같은 요소의 개입 없이 직접 결합하면 구와의 구별이 쉽지 않음을 보았는데, 요소의 개입과 달리 결합 과정에서 단어의 일부가 탈락 또는 절단되어 사라진다면 이것 역시 구와는 구별되는, 합성어만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은 일부 음소가 절단된 유형과 일부 음절이 절단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⁵⁾

대부분이다.

15) 여기에서는 경음화와 같이 발음상 나타나는 변화는 다루지 않고 선행명사와 후행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될 때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만 다루기로 하겠다.

1) 일부 음소가 절단된 유형

처음 볼 유형은 합성명사가 되면서 두 결합성분 사이에 음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현희(1991: 320~323)에서는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명사에서 내부 구조가 하나로 굳어진 단계는 ‘이완합성어’, 그 결합이 더 강해져 형태소 경계가 약화된 단계를 ‘긴밀합성어’로 보았다. 예를 들면, ‘활살’이 ‘화살’이 된 것은 [[#활#][#살#]과 같이 형태소 경계가 있는 상태에서 [#활# 살#]의 단계를 거쳐 [#활 + 살#]의 긴밀합성어로 발달된 것으로 보았다.

- (12) ㄱ. 나들, 므쇼, 화살, 바느실
 ㄴ. 가막가치(←가마괴+가치)

(12)는 중세국어의 예인데, (12ㄱ)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이고, (12ㄴ)은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¹⁶⁾ (12ㄱ)에서 ‘나들’은 ‘날’과 ‘들’이 결합하여 된 합성명사로 ‘세월’을 의미하고 ‘므쇼’는 ‘말과 소’를, ‘화살’은 ‘활과 살’ 또는 ‘화살’을, ‘바느실’은 ‘바늘’과 ‘실’을 의미한다. 이 단어들은 긴밀합성어의 예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음 탈락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예들이다.¹⁷⁾ 그런데 이러한 탈락을 우리는 후에 논의할 예들과의 통일을 위하여 일단 ‘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절단’은 결합 과정에서 구성성분의 일부가 잘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절단이 발생하면 절단이 일어나지 않은 대상에 비해 합성어 내부의 결합이 더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12ㄴ)의 ‘가막가치’는 ‘가마괴’와 ‘가치’가 결합하여 된 말로 까마귀와 까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결합 과정에서 ‘가마괴’의 ‘ㅌ’와 ‘ㄱ’

16) 이진호(2002: 222)에서는 합성어에 적용되는 축소와 탈락은 형태가 줄어들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탈락이 적용 환경이 명확한 데 비해 축소는 적용 환경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용어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17) (12ㄱ)의 예들은 중세국어에서 ‘나들, 므쇼, 화살, 바느실’로 표기된 예도 확인되는데 이것들은 앞에서 본 예들에 비해 결합이 느슨한, 이완합성어라 할 수 있다.

가 절단되었다. 이처럼 (12)의 예는 중세국어 합성명사 형성 과정에서 일부 음소가 절단됨으로써 합성어가 더 긴밀한 형태를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 (13) ㄱ. 묵쇼
- ㄴ. 가막가치

(13)은 근대국어의 예인데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와 축소가 일어난 경우를 보여준다.¹⁸⁾

- (14) ㄱ. 구조개(←굴+조개), 마소(←말+소), 마되(←말+되), 바느실(←바늘+실), 부삽(←불+삽), 푸나무(←풀+나무)
- ㄴ. 까막까치(←까마귀+까치), 까막술개(←까마귀+술개), 설마흔(←서른+마흔)

(14)는 현대국어의 예인데 (14ㄱ)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두 구성성분의 결합에서 선행성분의 말음절인 유음이 절단된 것들로 긴밀합성어의 예라 하겠다. (14ㄴ)의 ‘까막까치’는 이전 시대에 나오던 ‘가막가치’와 마찬가지로 ‘까마귀’에서 두 번째 음절의 ‘ㅌ’와 세 번째 음절의 ‘ㄴ’이 절단된 후 합성어가 된 예이다.¹⁹⁾ 그리고 ‘까막술개’는 ‘까마귀’와 술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역시 합성과정에서 절단이 일어난 예이다. ‘설마흔’은 ‘서른’과 마흔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서른’과 ‘마흔’이라는 두 명사가 결합하면서 선행성분의 두 번째 음절에서 모음 ‘ㅡ’와 종성 ‘ㄴ’이 절단되고 초성 ‘ㄹ’은 첫음절 ‘서’의 종성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합성명사 형성 과정에서 일부 음운이 절단되는 것은 두 성분의 결합을 더욱 긴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겠다.

18) 근대국어에서도 긴밀합성어 형태인 ‘묵쇼’와 이완합성어 형태인 ‘물쇼’가 같이 확인된다. 그리고 유음이 절단되지 않은 이완합성어 ‘굴조개’는 문중되나 긴밀합성어인 ‘구조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존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

19) 중세국어의 ‘가막가치’가 후에 형태가 변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2) 일부 음절이 절단된 유형

다음으로 볼 예들은 합성명사 형성 과정에서 일부 음절이 절단된 경우이다. 지금까지 긴밀합성어의 지표로 논의된 것은 주로 두 단어가 결합할 때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탈락과 같은 음운론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에서 더 나아가 명사와 명사가 합성명사로 결합할 때 그 사이의 음절이 절단되는 현상 역시 긴밀합성어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몇 가지 예를 유형별로 보기로 하겠다.

(1) 공통 음절이 절단된 유형

먼저 볼 유형은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두 요소 가운데 공통되는 동일 음절 중 한쪽이 절단되고 결합한 유형이다.

(15) ㄱ. 사나울, 암수값

 ㄴ. 압뒹집, 압뒹문, 아래웃니

(15ㄱ)은 중세국어의 예인데, ‘사나울’은 ‘사흘이나 나흘’의 뜻으로 ‘사울’과 ‘나울’이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면서 공통성분인 ‘울’ 중 하나가 절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 $ac+bc=(a+b)c$ ’의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선행 성분의 ‘울’이 절단되었는지 후행 성분의 ‘울’이 절단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암수값’은 ‘한 쌍의 칼’을 의미하는데, ‘암값’과 ‘수값’이 결합하여 된 단어이다. 그런데 이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되면서 공통되는 음절인 ‘값’ 중 하나가 절단되었다. 마찬가지로 ‘ $ac+bc=(a+b)c$ ’의 구조로 보이는데, 역시 선행 성분의 ‘값’이 절단되었는지 후행 성분의 ‘값’이 절단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²¹⁾ 이러한 예들은 합성명사를 형성할 때 성분 가운데 하나가 절단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15ㄴ)에

20) ‘사나울’은 고영근(2020: 201)의 합성명사 목록에서 가져온 것이다.

21) ‘암수값’이 ‘암술’와 ‘값’의 결합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서 근대국어의 예인 ‘압뒹뉼’, ‘압뒹집’과 ‘아래웃니’를 보자. ‘압뒹집’은 ‘압집’과 ‘뒹집’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통 성분인 ‘집’ 하나가 절단되고 나머지 음절이 결합하여 된 단어이고, ‘압뒹뉼’ 역시 ‘압뉼’과 ‘뒹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통성분 ‘뉼’ 가운데 하나가 절단된 예이다. ‘아래웃니’ 역시 ‘아랫니’와 ‘웃니’를 결합하면서 공통 성분인 ‘니’ 하나가 절단되고 결합한 예이다.²²⁾ 이처럼 합성명사를 만들 때 공통 성분 가운데 하나를 생략하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방식으로 현대국어에서도 이러한 예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 (16) ㄱ. 남북극(←남극+북극), 논밭일(←논일+밭일), 동서양(←동양+서양), 밀보릿짚(←밀짚+보릿짚), 밀썰물(←밀물+썰물), 손발톱(←손톱+발톱), 아래윗마을(←아랫마을+윗마을), 책결상(←책상+결상)
- ㄴ. 육해공군(←육군+해군+공군), 동서남북인(←동인+서인+남인+북인)

(16ㄱ)은 현대국어의 예인데 앞에서 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예처럼 두 명사가 결합할 때 중복되는 음절 가운데 하나가 절단되고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6ㄴ)과 같이 이러한 형성법이 세 단어 이상의 결합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육해공군’은 ‘육군, 해군, 공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동서남북인’은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을 합한 말로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합성명사 형성과정에서 공통되는 음절이 절단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바 없으나 이것 역시 앞에서 본 사이시옷의 역할처럼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될 때 그 결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 하겠다.²³⁾

(2) 비공통 음절이 절단된 유형

다음으로 볼 유형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될 때 그 구성성분이

22) 이 예들 역시 ‘압뒹’과 ‘뉼’, ‘압뒹’과 ‘집’, ‘아래웃’과 ‘니’의 결합일 가능성도 있다.
 23) 명사와 명사의 단순 결합이 구와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사이시옷이 결합하는 경우나 성분의 일부가 절단되는 것은 합성명사 판별에 어려움이 없다.

되는 한쪽 명사, 또는 두 명사 다에서 절단이 생기는 경우이다. 앞에서 본 유형이 공통 음절이 절단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공통 음절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요소가 절단되는 예들이다.

(17) ㄱ. 오누의

나. 그에 ㅍ이 이쇼되 오누의니 다 地獄 땡 ㄱ라 두고 오라비²⁴는 남지니 이를
다스리고 누의는 겨지비 이를 다스릴찌 雙王이라도 호느니라 <월인석
보4 : 11ㄱ>

(17)은 15세기 자료의 예인데,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누의’는 ‘오라비’와 ‘누의’를 같이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누의’는 ‘오라비’에서 ‘-라비’가 절단된 ‘오-’와 ‘누의’가 결합하여 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18) 여닐굽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여닐굽’은 ‘여숫’과 ‘닐굽’이 결합하여 된 말로 ‘여섯’이나 일곱쯤 되는 수를 의미한다.²⁴⁾ 이 단어의 형성은 (15ㄱ)에서 본 ‘사나을’과는 차이가 있다. ‘사나을’은 ‘사을’과 ‘나을’에서 중복되는 요소인 ‘을’ 하나가 절단된 반면, ‘여닐굽’은 ‘여숫’의 ‘숫’이 절단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현대국어에서도 확인된다.

(19) 올내년

‘올내년’은 ‘올해와 내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선행 성분인 ‘올해’의 ‘해’가 절단되었다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유음 탈락은 대부분의 단어형성 논의에서 긴밀합성어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처럼 합성명사 형

24) ‘여닐굽’은 고영근(2020 : 201)의 합성명사 목록에서 가져온 것이다.

성과정에서 일부 음절이 탈락하는 것 역시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처럼 합성명사가 될 때 일부 음절이 탈락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주로 혼성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었다. 혼성어는 일반적으로 ‘AB’와 ‘CD’라는 두 단어가 결합할 때²⁵⁾ 선행성분의 뒷부분인 ‘B’와 후행성분의 앞부분인 ‘C’가 절단되고 ‘AD’가 한 단어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²⁶⁾ 이는 주로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breakfast’와 ‘lunch’가 결합하여 된 ‘brunch’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에서 본 합성명사의 유형들이 대부분 중세국어부터 확인되는 반면, 혼성어는 현대국어에서 상당히 많은 예가 확인되는데 그 형성방식이 갑자기 나타났다고보다는 영어 외래어의 형성방식이 한국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혼성어가 최근에 많이 생긴다는 사실은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서 혼성어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찬영(2016 : 2)에 따르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서 혼성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까지는 1퍼센트 내외였으나 2010년에는 15%, 2014년에는 26%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최근 들어 혼성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며 그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영어 외래어와 관련한 단어들이다.²⁷⁾ 그러나 (17)~(19)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방식이 국어 단어 형성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예가 일부에 불과하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형성법으로 논의된 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서구 외래어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새로운 단어의 생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굳이 그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말에서도 이미 존재했던 단어형성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AB’와 ‘CD’에서 ‘A’와 ‘C’는 단어의 앞부분, ‘B’와 ‘D’는 단어의 뒷부분을 의미한다.

26) B와 C가 절단되는 것이 대표적이나 B나 C, 또는 B와 D, A와 C 등 다양한 위치에서 절단이 나타난다.

27) 국립국어원의 <2014년 신어>에 나오면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넉치(←나이트+런치), 벡프팅(←벡+리프팅),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레티켓(←레저+에티켓), 모루밍(←모바일+쇼루밍), 바이슈머(←바이어+컨슈머), 바이어트(←바이시클+다이어트), 워런치(←워킹+런치), 의느님(←의사+하느님), 캠프토랑(←캠핑+레스토랑), 캠프닉(←캠핑+피크닉), 커넥티즌(←커넥트+네티즌), 퍼슈머(←퍼슈+컨슈머), 픽처리어(←픽처+인테리어), 호캉스(←호텔+바캉스), 힐렉스(←힐링+릴렉스).

또한 최근 들어 특이한 현상은 외래어가 아닌,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또는 고유어끼리의 결합에서도 이러한 혼성어 방식이 자주 확인된다는 것이다.

(20) 할빠, 의느님, 기레기

‘할빠’는 ‘할아버지’와 ‘아빠’의 결합으로 ‘아빠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를 의미하고, ‘의느님’은 ‘의사’와 ‘하느님’의 결합으로 ‘신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를 말한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결합으로 ‘기사로써의 전문성이 낮은 기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 단어들은 ‘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유어로 혼성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확대 양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두 단어의 결합에서 일부 음절이 절단되는 방식을 합성명사 형성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합성어와 구별되는 혼성어 형성 방식을 따로 설정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²⁸⁾ 지금까지 혼성어는 서구에서 유래한 단어형성법으로 보았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합성어 형성과는 구별하여 다루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절단이라는 방식에 주목한다면 ‘마소’처럼 음운이 절단되거나, ‘동서양’처럼 공통 성분이 절단되는 방식과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예는 아니나 ‘오누이’나 ‘올내년’과 같은 예를 보면 우리말에서도 혼성어 방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유형 역시 합성명사로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의미핵의 위치이다. 우리는 앞에서 대등 합성어는 의미핵을 특정할 수 없지만 종속 합성어의 경우 후행명사가 의미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혼성어는 그렇지 않아 흥미롭다. 앞에서 본 ‘할빠, 의느님, 기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

28) 이선영(2016)에서는 합성어와 달리 혼성어에서는 절단이 일어남에 주목하여 혼성어와 합성어를 구별하였는데, 실질형태소가 실질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질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들은 각각 ‘아빠 같은 할아버지’, ‘하느님 같은 의사’, ‘쓰레기 같은 기자’의 의미로 해석되어 후행명사가 아닌, 선행명사가 의미핵이 된다.²⁹⁾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혼성어는 구 구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각각 존재하는 두 단어를 의미 중심으로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음절이 절단된 후 합성하는 과정에서 의미 인식과 변별에 유리한 형태로 배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빠 같은 할아버지’, ‘하느님 같은 의사’, ‘쓰레기 같은 기자’란 의미로 새롭게 단어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각각에 해당하는 두 단어를 합하여 합성명사를 만들 때 두 명사의 종속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두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될 것이다.

- (21) ㄱ. 아빠+할아버지 → *아지 / *아버지
- ㄴ. 하느님+의사 → *하사
- ㄷ. 쓰레기+기자 → *쓰자

(21)처럼 음절이 배열된다면, 세 단어 모두 우리가 의도했던 원래의 선명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순서를 바꾸어 형성된 ‘할빠, 의느님, 기레기’는 의미의 선명성이 드러나는 음절을 노출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³⁰⁾ 이처럼 혼성어는 의미의 배열 순서에 상관없이 뜻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단어형성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합 후 생기는 의미의 선명성이 의미핵의 위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면 의미핵이 앞에 오는 것도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³¹⁾

29) 이러한 점은 혼성어를 합성명사와 구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30) 50만 어휘 이상이 실려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마지막 음절이 ‘-빠’로 끝나는 등재어는 ‘아빠, 오빠’ 등 15개이고, ‘-느님’은 ‘머느님, 하느님’ 2개, ‘-레기’는 ‘귀부레기, 찌르레기, 쓰레기’ 등 21개인데 이러한 음절들로 끝나는 단어들 중 ‘아빠, 하느님, 쓰레기’가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 단어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31) ‘할빠, 의느님, 기레기’에서는 선행성분인 ‘할아버지, 의사, 기자’가 의미핵이 되지만, ‘레티켓’(←레저+에티켓 : 레저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호캉스’(←호텔+바캉스 :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와 같은 예에서는 후행성분인 ‘에티켓’과 ‘바캉스’가 의미핵이 된다. 또한 ‘소맥’(←소주+맥주 : 소주와 맥주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술)과 같은 예에서는 의미핵을 특정하기 어렵다.

합성명사에서 의미핵은 대부분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에서 본 ‘하늘땅, 앞뒤’와 같이 의미핵을 상정할 수 없는 것도 합성어로 보기에 의미핵이 선행한다는 것만으로 혼성어가 합성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제3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쩌면 혼성어는 합성어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또한 일부 성분이 절단되는 것은 구와의 혼동 없이 두 성분의 결합을 공고히 해주는 장치로 쓰였다 하겠다. 이에 우리는 혼성어도 합성어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³³⁾

우리는 앞에서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이 합성어 표지로 쓰이고 있음을 보았다. 물론 사이시옷이 사잇소리를 표시하는 음운론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우웃값’처럼 사이시옷이 결합한 단어는 구로 처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게 볼 때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은 합성어 표지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절단 현상들은 두 단어의 결합을 공고하게 해 주며 그 결과물인 단어를 합성명사로 인식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하겠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시기별로 나타나는 합성명사 형성방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합성명사는 그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성분의 형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명사와 명사가 아무 개재하는 요소 없이 직접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가장 많은 합성명사를 형성하게 되는 방식이지만 구와의 구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둘째, 사이시옷이 개입한 합성명사의 형성방식이다. 사이시옷은 중

32) 굳이 따지자면 의미상 융합합성어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33) 혼성어가 합성어와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합성어와 파생어의 거리만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세국어에서는 음운론적 기능을 하는 사이소리와 속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이시옷이 표기상 구별되지 않고 같이 쓰였다. 그러다 근대국어에서 속격조사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후 주로 합성어 표지로 남아있게 되었고,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단어에서 합성어 표지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사이시옷은 두 구성 명사의 결합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될 때 그 사이에서 절단이 일어나는 유형이다. 이러한 절단 역시 사이시옷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두 구성성분의 결합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절단은 그 유형에 따라 다시 음운의 절단과 음절의 절단으로 나누어지고, 음절의 절단은 다시 공통 음절의 절단과 비공통 음절의 절단으로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비공통 음절의 절단으로 생기는 합성명사는 혼성어라 하여 합성어와 구별하였는데, 이 방식은 ‘오누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나는 방식이었으며 합성어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방식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고영근, 『제4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020.
- 김규선,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연구 - 구와 복합어 구별의 기준 설정을 위한 -』, 『어문학』 23, 한국어문화회, 1970, 93~123쪽.
- 김영선, 『합성어 형성과 음운현상』, 『국어국문학』 10,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1990, 251~265쪽.
- 김유범, 『통사성과 합성어의 유형 변화』,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2011, 119~143쪽.
- 김은주, 『국어 비통사적 합성용언과 통사적 합성용언의 공존 양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정인, 『15세기 국어 'N1+^+NP2' 구성 속 사이시옷의 정체성과 관련한 제문제』, 『국어학』 83, 한국어학회, 2017, 183~219쪽.
- _____, 『국어 사이시옷의 변화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1996.
- _____, 『합성법의 변화』, 『국어사대계』, 태학사, 815~840쪽, 1997.
- 남미정, 『중세국어의 사이시옷과 합성명사』, 『언어와 정보사회』 18,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77~100쪽, 2012.
- 박창원, 『사이시옷과 사이시옷(1)』, 『이화어문논집』 15, 이화어문화회, 461~482쪽, 1997.
- 서정수,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 한글학회, 367~400쪽, 1981.
-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1990.
- 이광호,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2004.
- 이기문, 『개정판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72.
- 이상욱, 『한국어 복합명사의 형성과 통사부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선영, 『사이시옷과 사이시옷에 대한 관견』,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2005, 539~555쪽.
- _____, 『한국어의 'NP1+옛+NP2' 구성과 'NP1+^+NP2' 구성』, 『형태론』 8, 2006, 295~311쪽.
- _____, 『혼성어의 위상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 44의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47~66쪽.
- 이진호, 『음운론적 시각에서 본 중세국어 합성어의 긴밀성』,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02, 201~228쪽.
- 이찬영,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현희,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인 정보』,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논총』, 1991, 315~333쪽.
- 임홍빈,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한국어학회, 1981, 1~35쪽.
- 정한데로, 『발견을 위한 한국어 단어형성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 최형용, 『현대국어의 사이시옷은 과연 형태소인가』, 『형태론』 11의 1, 2009, 61~78쪽.

Compound Nouns and the Changes of Compound Word Formation

Lee, Seon-yeong*

This paper is on diachronic change which occurred from middle Korean to contemporary Korean in word-formation of compound nouns made by combination of nouns. I examined word-formation of compound nouns in three ways. First, the way that nouns are combined directly without inserting component have continued without changes since middle Korean. The most compound nouns have been made by this way, bu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from phrase. Second, the way that sai-siot is inserted between nouns has had many changes from middle Korean to contemporary Korean. Sai-siot was used for genitive case marker in middle Korean, and in modern Korean it was used mostly for compound marker with function-change. In contemporary Korean it is used for compound marker in some words. In contemporary Korean, sai-siot has played a role to firmly combine two components, and compound nouns made by sai-siot are distinguished from phrases. Third way is the type that clipping occurs when compound noun is made by the combination of nouns. There are clipping of phoneme and that of syllable. And clipping of syllable is divided into clipping of same syllables and that of different ones. Such clipping has a role to firmly combine two components like sai-siot. From now on we have called the word made by clipping of different syllables blends. But clipping of different syllables happened in

* Profess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ongik University

middle Korean and the word made by that way can be classified as compound nouns.

Key words : compound noun, sai-siot, blends, clipping, semantic head